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정관

오늘(6/11) 1부와 2부 예배 직후, 임시 교회총회에서 ‘남플 정관’ 을 확정합니다. 지난 주에 보내드린 한영 남플 정관을 충분히 살펴보셨으리라 믿고, 임시총회 참가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어카운트

남플은 GMC로 교단을 변경함에 따라, 은행 어카운트를 ‘South Florida Global Methodist Church’ 이름으로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 수표로 현금하는 경우, 수취인 난에 ‘South Florida Global Methodist Church’로 기입하든지, 약자로 ‘S.F.G.M.C’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UMC에서 GMC로의 행정절차가 모두 이전되는 과도기적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정하고, 이전 어카운트도 계속 유지하니 현행대로 현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교회학교 진급/졸업예배

남플 교회학교 학생들은 지난 주 진급 및 졸업예식 이후 한 학년씩 진급합니다. 새로운 학년과 환경으로 나아가는 교회학교 학생들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플 탁구반

남플 레포츠 사역팀에서 탁구반을 개설할 계획으로 6월18일(주)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탁구경기를 통해 육체의 건강을 지키고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양식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며, 모임 일시는 첫 모임 (6월18일 1시, 초등부 실)에서 정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outh/EM 광고

1. Youth Group FNL (Friday) meeting at 7:00pm at church  
2. Feed South Florida: Every Saturday at 8:00 am to 10:30 am  
Volunteer hours will be offered to youth students.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0 pm  
성경공부 / 목요일(격주) 7:0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 Youth/ 김학섭 목사
- 유아유치부/ 윤성민 전도사, 유초등부/ Ms. Carmen Chang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2부 플룻- 노지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오행복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김동규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은혜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 교회관리/ 전정환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34,437.00

일반헌금 \$30,287.00	십일조: \$16,787.00 주 일: \$1,041.00	감 사: \$1,170.00 기 타: \$11,289.00
건축헌금 \$80.00	약 정: \$80.00	
선교헌금 \$4,070.00	속 화: \$420.00	중남미: \$3,65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2권 24호  
2023년 6월 11일



2023년도 표어

“새 비전,  
새 시대,  
새 역사”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둘째주일 >예배순서

- |   |  |
|---|--|
| <p><b>1부(8:00am)</b></p> <p>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배찬송 Opening Hymn / 14장</li> <li>▲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4번</li> <li>▲ 영광송 Gloria / 2장</li> <li>▲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찬송 Hymn / 84장 (통96)</li> <li>기도 Prayer / 이운섭 장로</li> <li>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li> <li>교회소식 Announcement /</li> <li>▲ 봉헌 Offering /</li> </ul> | <p><b>2부(10:30am)</b></p> <p>인도자 Presider</p> <p>다같이</p> |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호흡 있는 모든 만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선,  
마음이 상한 자를

기도 Prayer/ 이상열 권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생명의 양식 -

영상 광고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시편(Psalms) 119:129-135

< 주의 증거가 놀라우므로 >

Your statutes are wonderful..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 파송찬송 Closing Hymn/ 546장 (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Standing on the promises)
- ▲ 축도 Benediction/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3년 6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6월 11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이운섭장로	소망교구
	2부			이상열권사	
다음주 6월 18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이현숙권사	사랑교구
	2부			전정환권사	

금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Ps)119:130.  
\*인용성구/ 눅(Lk) 5:5, 시(Ps)91:4-6, 나(Nahum)1:12, 시(Ps)27:4



**2023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01 유아 유치부**

일정 8월 4일 (목) ~ 8월 6일 (일) 10:00am ~ 3:00pm 장소 교회

주제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Living in Faith

**02 초등부**

일정 7월 26일 (수) ~ 7월 29일 (토) 09:30am ~ 12:30pm 장소 교회

주제 Twist and Turns (Psalm 25:4) FOLLOWING JESUS CHANGES THE GAME

**03 중고등부** FCA Lakeland Leadership Camp

일정 6월 26일 (월) ~ 6월 30일 (금) 장소 Southeastern Univ. Lakeland

주제 Greater (John 3:30)

**04 청년부 여름수련회**

일정 6월 9일 (금) ~ 6월 11일 (일) 09:30am ~ 3:00pm 장소 마이애미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6월 11일)	다음주 (6월 18일)
김숙희, 김문응장로	박영희, 고태영권사
결혼기념감사	결혼기념감사
소망교구	사랑교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2:19). 사람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집니다.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시간도 내가 기쁘면 빠르게 지나가고 내 마음이 우울하면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 신분을 얻은 사람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고 인생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사람에게 예수님께 급히 보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의 관계를 봐서 급히 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11:6-8).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로 오 시라는 사람들과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가야한다는 이들은 인간적인 관계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상황 논리로 호소했습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니 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왜 난처한 것일까요? 이 두 부류의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래도 저래도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더 유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마리아 자매가 서운해 하지 않았겠나? 이틀 후에는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예수님은 양쪽 모두를 만족 시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온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 그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한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11:40). 예수님이 아무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이 행할 일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르다 자매에게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것으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나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회인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들이 그 고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인생의 생사화복,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1속 (평양과기대-고동훈)	충성2속 (도미니카- 피터정)	충성3속 (아틀란타- 다니엘양)
믿음1속 (중국- 장은광)	믿음2속 (쿠바- 김기현)	믿음3속 (카자스탄- 양재성)
믿음4속 (이라크- 손기주)	온유1속 (니카라과- 김향자)	온유2속 (말레이시아- 김시은)
온유3속 (아리조나- 이영호)	소망1속 (니카라과- 김규현)	소망2속 (볼리비아- 김영모)
소망3속 (키르기스스탄-임다윗)	사랑1속 (태국- 이우현)	사랑2속 (터키- 송정렬)
은혜1속 (하이티2- 정 광)	은혜2속 (하이티- 김승돈)	